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활력'

정원컴퍼니·에이치텍 등 국내 28개 홀로그램 기업유치

익산시에 홀로그램 기업 투자유치 행렬이 이어져 실감 콘텐츠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력이 되고 있다.

시는 20일 익산시청에서 (주)정원컴퍼니(대표 최정완), 에이치텍(대표 이춘호) 두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익산시로 본사와 공장을 두고 20여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정원컴퍼니(대표 최정완)는 익산 청년 창업 기업이다. 홀로그램 사인지 시스템 제조와 T-ICD 및 Floating 홀로그램 개발에 주력, 각종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여러 전시회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에이치텍(대표 이춘호)은 홀로그램 기록매체가 주생산품이다. LG 배터리 홀로그램 라벨 및 각종 대형 행사 홀

로그램 티켓 제작과 해외에 홀로그램 필름 및 재료 수출 기술이전을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요처를 둔 기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기술 제품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업영역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는 홀로그램,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포괄해 실감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20년부터 홀로그램 기업 총 28개사와 투자협약을 실시하고 20개사가 이전한 상태로 실감콘텐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신사업 개발 및 사



업 영역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그간 개발한 신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홀로그램 메카도시 익산에 동지를 틀게 된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기업과 시가 상생발전해 대한민국의 홀로그램 도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울-익산 관광 네트워크 강화'

익산시, '2023 서울국제트래블마트'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나서

익산시가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대규모 국제관광교류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트래블마트에는 해외 바이어 220여 명 등 국내외 여행업계 610여 개사가 참여하여 바이어-셀러간 B2B 트래블마트와 홍보부스 등이 운영된다.

시는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대표적인 역사관광자원 인프라와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알리며 익산의 매력을 홍보했다.

해외 바이어 B2B상담과 함께 홍보부스에서 방문의 해 관광 홍보영상 상영을 비롯한 관광지도, 홍보 리플

릿 배포 등과 같은 관광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알찬 관광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는 서울관광재단 주최로 세계 관광시장 회복에 발맞춰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교류의 장으로 서울-지방 상생 관광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5일에 서울관광재단 주최로 익산에서 진행된 서울-지방 상생 팸투어에 이어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참가를 통해 서울과 익산간 관광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호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익산 70분 거리인 철도교통 강점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국제 관광시장 개척과 '2023 익산 방문의 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보릿짚 활용·수거 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군산시가 불법소각 방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릿짚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20일 봄철 민원한 보릿짚(밀, 귀리 등)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토양환경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보릿짚 활용 및 수거 지원사업은 맥류의 영농부산물을 잘게 썰어 토양에 환원 시 20만원/ha·수거 시 10만원/ha를 지원하고, 농가의 수거작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읍·면·동별로 수거반을 지정해 수거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 번의 정보로 구비서류 제로화... 한발 앞선 서비스 선보여

익산시, 행안부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 최초 시범

익산시가 전국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가 추진하는 '미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사업'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한 번의 정보요구로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제로화 시범서비스를 운영해 한발 앞선 민원 행정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는 7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전국 유일 지자체 시범기관으로 사용자 교육 지원과 방문 현장 대응실시 등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

신망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34개 보유기관에서 164종의 공동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용기관 및 대상정보 확대로 정보유용성이 급증하자 행안부는 기존 공동이용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정보허브를 통한 기존 정보유용 서비스 통합에 나섰다.

여기에 사용자 중심 정보서비스로 리뉴얼된 공동이용 포털을 구축하고 구비서류 제로화방안 마련을 위한 이

용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익산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구비서류 간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 담당자에게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임에도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해 올 상반기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거쳐 5개과 6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업용 면세유 올 1~2월분 추가 지급

군산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통해 유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면세유 지난 1~2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리터당 경유 200원, 휘발유 153원, 등유 288원, 중유 155원, LPG(년용) 159원, LPG(차량) 46원, 부생연료유(1호) 288원, 부생연료유(2호) 216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사업 신청은 추경예산 확정 후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면세유 지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3~5월 총 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 3,0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9~12월 4개월 분 면세유를 지원한 바 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추경예산 확정 후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면세유 지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3~5월 총 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 3,0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9~12월 4개월 분 면세유를 지원한 바 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금이나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

군산시가 20일 해상풍력 조성 사업 본격 검토를 위해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11명과 지자체 6명, 공익위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주민대표 민측위원장은 심명수 군산시 수협어촌계협의회장이 선출됐으며 지자체 관측위원장은 김미정 부시장이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간 운영돼 온 상생협의회를 재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의견이 모아져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수산업 공존 해상풍력 산업화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방침이다.

위촉 첫 날인 이날 민측위원장(심명수 군산시 수협어촌계협의회장)을 선출하고 협의의 운영 방안과 운영 규정(안),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강소특구, 웰바이오텍EVC와 상생협력 세미나 성료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하 군산 강소특구)은 20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웰바이오텍EVC와 상생협력 기반 및 제품사업화를 위한 EVC전시시스템 분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웰바이오텍EVC와 군산 강소특구 내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설명회로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과 군산소재 특화분야 기업체의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요 행사로는 전기차 및 충전기 시장 동향 전기차 충전기 및 2차 전지

구조와 기능 특강과 참여기업과의 전기차충전기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구축 협력방안 논의 등의 내용으로 교류회를 추진했다.

또 이번 설명회는 올해 군산 강소특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네트워크 사업으로 EVC전시시스템의 주축인 웰바이오텍EVC와 군산 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교류회를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개최

익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이달 셋째 주 화요일인 20일 개최됐다.

익산청년시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70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 참가기업은 △한토식품기업인 삼양식품, 허립산업, 서주제과 △지역 반도체 생산제조사인 광전자, 에이유이 △트루리기업 자동차부품업체인 부성테크, 보립테크, 대동철강, 길손산업, 남부정공 등 총 10개사다.

취업박람회 당일 현장면접에 구인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구직자 연결 등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기관 고용부 '구직자 도야보장패키지사업', '익산시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의 공금사함을 해결해 주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테마로 이 시대 청년으로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시 관계자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매일 제공함으로써 취업박람회가 정례화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